

몇 번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해
진 봄기운.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얗
고 우아한 목련이 피었다 지더니 마치
차레라도 지키듯 개나리, 왕벚꽃, 철쭉
을 우르르 피워내는 꽃 계절. 꽃잎이 봄
눈 되어 흩뿌리는 숲길을 허물없이 걸
으며 환하게 웃는 햇살을,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나무를, 나날이 한 뼘씩 키
를 키워가는 숲을 보세요. **바라보세요.**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멍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눈으로 거니는 봄날의 숲

꽃잎이 봄눈 되어 흩뿌리는 숲길을
하릴없이 걸으며, 환하게 웃는 햇살을,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나무를 보세요.

바라보세요.

CONTENTS

06

숲의 선물

봄날의 숲속에서 초록의 축복을 마주하다
- 숲의 선물, 초록

08

숲의 초대

숲을 보고 촬영하고 재현하다
- 숲을 테마로 한 사진과 다큐들

12

숲의 만남

제주에서 보내온 봄 편지
- 농부가 된 뮤지션, 루시드폴



18

어떤 정보

숲 사진, 어디까지 찍어봤니?
- 스마트폰 숲 사진 촬영비결

20

나를 부르는 숲

매화 난만하니 드디어 봄이로구나
- 경남 양산 원동 매화숲

26

트렌드의 숲

마침내 새봄, 공간에 그린을 초대하세요!
- 그린테리어



Vol. 52 March | April 2023

48

숲속 우체통

50

숲이 전해온 소식



30

브런치@숲

취나물 향에 취하는 브런치 식탁
- 취나물 파스타 & 취나물 샐러드

34

숲 크리에이터

4D의 숲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자연을 만나다
- 디지털 디자인 컴퍼니, d'strict

38

에코 프로젝트

커피 찌꺼기로 연필도 만들고 벽돌도 만든다고?
- 커피박 재자원화 플랫폼, 커피큐브

42

숲의 내일

세계가 놀라는 기적, 반세기 만에 이뤄낸 국토녹화
- 산림청, 국토녹화 50주년 기념사업

46

콘텐츠의 숲

가고 싶었던 숲, 전시로 만나다
- 숲을 주제로 한 전시의 발견



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3년 3월 30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이른 봄, 숲은 차례대로 천 가지 컬러를 피워낸다. 산수유, 개나리, 수선화의 노란색부터 매화, 벚꽃, 진달래로 대표되는 분홍색, 목련으로 대표되는 우아한 백색, 봄이 무르익으면 온 동네에 울긋불긋 터뜨리는 철쭉의 꽃 폭죽까지, 봄날의 숲엔 그야말로 총 천연 색깔 잔치가 열린다. 이중 봄을 대표하는 색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은 초록이다. 초록은 생명의 상징이며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주 어린 연두 빛깔 초록부터 점점 짙푸르려져 가는 초록을 바라보며 계절의 생동감을 마주해보도록 하자.

봄날의 숲속에서 초록의 축복을 마주하다

숲의 선물, 초록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보드라워진 흙과 따스해진 공기를 뚫고 겨우내 말라 있던 나뭇가지에서 힘겹게 틔워내는 연두 새싹. 일년 중 이른 봄에만 만날 수 있는 어리디 어린 연두빛은 생명과 탄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태어난 연두는 날마다 초록을 더해가며 숲을 짙푸르게 물들인다. 사람들은 깊어지는 초록을 마주하며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성장을 예감하게 된다. 사람들이 초록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생명의 서사가 색깔 안에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초록의 또 다른 기능은 편안함을 준다는 데 있다. 눈의 피로를 느낄 때는 초록을 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초록색은 520~570nm의 파장을 갖는 가장 안정적인 색으로 눈을 자극할 우려가 적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초록은 특별한 기능을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에서 진화했으므로 자연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잠재 기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연에서 온 컬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편안함과 치유, 힐링 등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는 우울한 기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른 봄날 생명력이 충만한 시간을 갖고 싶다면 눈을 들어 식물들, 숲을, 자연을 보도록 하자. 균형의 색깔이며 생명의 색깔인 초록이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재워줄 것이다. 🌿

GREEN



GREEN

숲을 보고, 촬영하고, 재현하다

숲을 테마로 한 사진과 다큐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우리는 언제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사진을 찍고 싶을까? 아마도 놀랍고 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다시 꺼내 보고 싶은 순간이거나 그 이미지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때가 아닌가 싶다. 때문에 수많은 사진에 숲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숲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피사체다. 1800년대 후반, 처음 카메라로 찍어낸 숲 사진들부터 처음 판매를 시작했던 풍경 사진,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담은 숲 다큐멘터리들까지 카메라가 포착한 숲 사진의 역사를 들여다 본다.

Joseph Nicéphore Niépce



사진술의 등장과 숲 사진의 시작

사진술이 등장했던 1820년대, 유럽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사물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가 태동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사물을 가장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기술, 사진술의 등장은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사진술이 발견된 1820년대로 돌아가 보자. 17~18세기 화가들은 좀 더 빨리,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두운 방'이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진 카메라 옵스큐라는 일종의 기계장치로 상자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을 통과시켜 반대쪽 벽면에 거꾸로 투사되는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상을 얻을 수 있었던 장치였는데 1826년 조세프 니에프스가 이를 고정시키는 기술, 사진술을 발견해냈다. 공학도였던 프랑스의 조세프 니에프스는 아스팔트 건판을 이용해 노출시간이 8시간이나 걸린 헬리오그래피(Heliography, 태양으로 그리는 그림), 즉 최초의 사진을 찍어냈다. 이 기술의 발견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피사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숲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800년대 후반 카메라가 포착한 숲의 순간들

1800년대만 해도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 철도가 놓이고 증기선이 개발되었지만 여행은 일반인들이 꿈꾸기에 여전히 어려운 것이었다.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은 폭발적이었고 때문에 자료로 찍은 다양한 풍경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 서부 풍경 사진은 제작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째 탐험대의 자료 사진, 둘째 대륙횡단 철도회사에서 의뢰한 사진, 셋째 판매를 위한 풍경 사진이었다. 여기서 세 번째, 판매를 위한 풍경 사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대중들에게 풍경사진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미지의 장소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다는 것, 대규모 인화가 가능했다는 것, 사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덕분에 당시 사진가들은 사진 판매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자연 풍경을 기록해서 대중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이중 사진가들이 주로 찾았던 숲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고립된 요세미티의 거대한 자연 풍경을 현실감 있게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요세미티 풍경 사진을 찍은 사람은 1859년 찰스 워드였다. 그는 스테레오 사진과 11X15인치 사진을 찍었고 이후 왓킨즈가 18X22인치 카메라로 사진을 제작했다. 이 역사는 탐험대와 동승하여 대형 카메라로 계곡의 깊은 곳까지 촬영한 워트킨으로 이어졌고 1867년부터 1873년까지는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에 의해 미국 서부와 요세미티의 아름다운 계곡이 많이 촬영되었다.



풍경 사진의 거장,
앤설 애덤스의 사진 세계

미국 풍경 사진의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풍경 사진의 거장 앤설 애덤스다. 그는 사진작가이자 환경보호가로 활동했는데 그가 찍은 사진들은 모두 걸작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14살 때 요세미티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촬영했던 그는 물체의 농담과 뚜렷한 세부 묘사로 아름다움을 강조한 '스트레이트 사진' 기법을 주로 사용했다. 피사체의 질감이 손에 느껴질 만큼 생생한 사진들은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인 사진술과 인화술로 완성한 것으로 현대까지 완벽한 풍경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앤설 애덤스의 시기를 거치며 사진은 기록하는 매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중은 사진을 예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Ansel Easton Ad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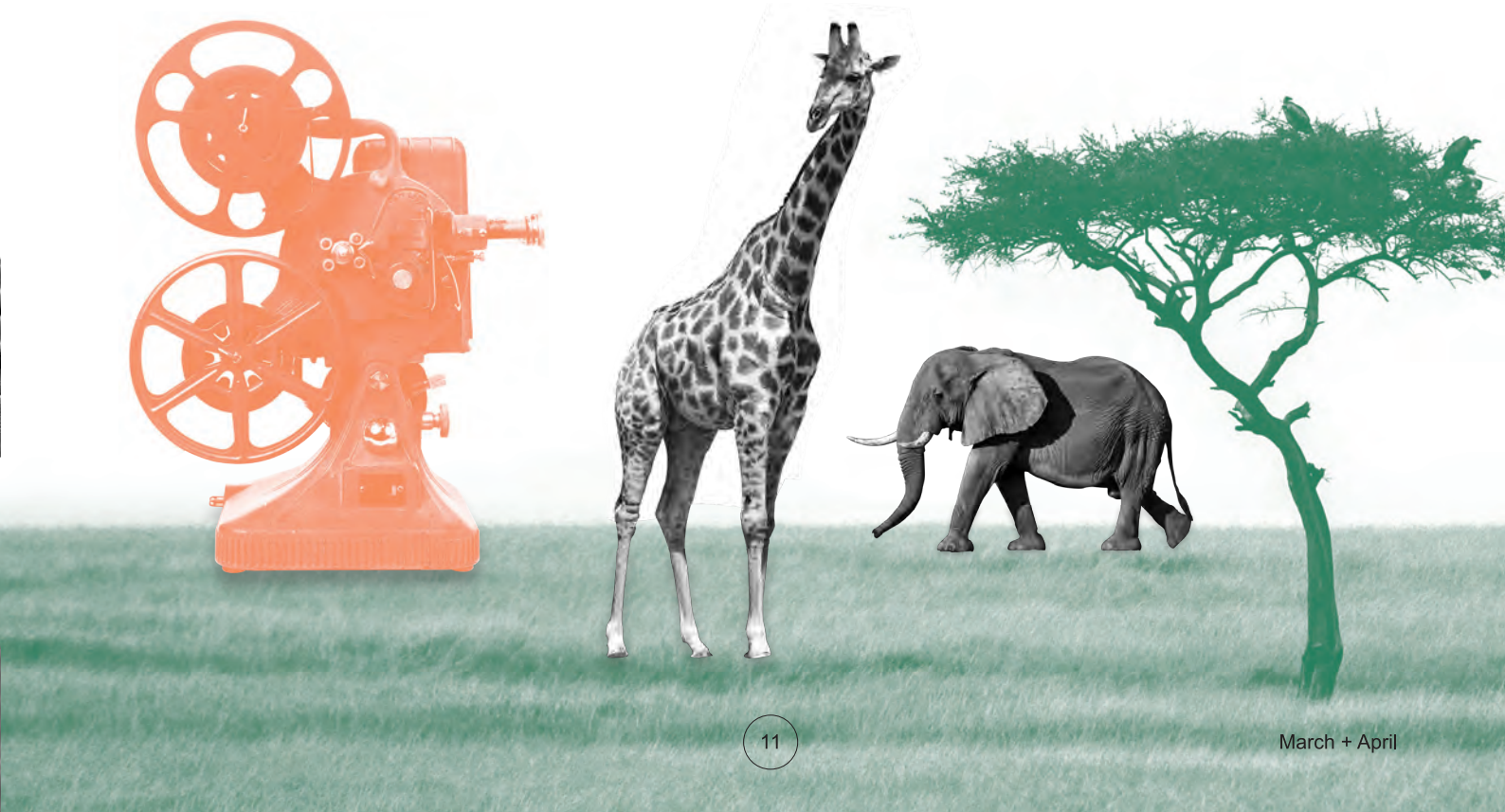


다큐에서 발견한 자연의 경이로움

이후에도 풍경 사진은 끊임없이 거듭났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컬러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동영상 사진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도 등장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자연을 더욱 생생하게 담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계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 영국 방송국 BBC와 손잡고 1979년 <라이프 온 어스>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애튼버러다. 그는 지구 구석구석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한 동물의 삶을 13개의 에피소드로 만들어냈다. 또 하나 기억할 다큐는 BBC가 디스커버리, NHK와 공동으로 손잡고 만들어낸 2006년작 <살아있는 지구>다. 50분 분량의 11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살아있는 지구>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지구의 숲을,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선사했다.

새로운 영감을 받고 싶다면
카메라가 포착한 숲의 순간들을
다시 한 번 재생해보기 바란다.

사진은, 다큐는 어쩌면 시간을 기록하는 작품인지도 모른다. 달라지는 풍경과 계절의 변화, 개인의 시선, 감상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숲에 들어가 끊임없이 셔터를 눌러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싶어서, 순간의 기쁨을 사진 속에 박제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으로 과거의 사진들과 다큐를 들여다보면 자연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영감을 받고 싶다면 카메라가 포착한 숲의 순간들을 다시 한 번 재생해보기 바란다. 사진을 통해, 다큐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붙잡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



제주에서 보내온 봄 편지

농부가 된 뮤지션, 루시드폴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안테나, 루시드폴



Lucid Fall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이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 보드라운 봄바람과 함께 들과 바다와 숲과 산이 가장 먼저 깨어나는 제주도. 때문인지 이때쯤이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곳, 섬으로 달려간다. 제주의 봄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렇게 루시드폴을 떠올렸다. 화학자이자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돌연 제주로 내려가 굴 농사를 짓고 있는 루시드폴, 벌써 제주살이 10년 차라는 그를 만나 코끝에 감지되는 따스한 봄기운을 만나 보았다.



“10년 가까이 나무들을 돌보며 농부로 살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겸손하고
무직한 친구인지, 숲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거리에서 숲에서 공원에서
나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잠시 멈추고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줄 겁니다.”

제주에 먼저 도착한 봄

루시드폴의 봄은 벌써 분주하다. 2월 초 입춘이 지날 무렵부터 과수원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하면 이르게 시작한 한 해 농사. 봄날 내내 해야 하는 가지치기를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7년째 된 오두막도 군데군데 손보고 있다. ‘과수원’을 학교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한 느낌이라는 루시드폴에게 제주의 봄에 대한 묘사를 부탁해 보았다. “정확히 10년째 제주의 봄을 맞게 되는군요. 제주에서는 입춘이 지나면 2월 즈음 마을마다 포제가 열리는데요. 포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을 때 봄의 ‘코끝’을 보는 기분이 들어요. 조금 지나면 산에 복수초와 노루귀 같은 봄 들꽃이 피어나고 3월에는 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레몬나무와 감귤나무에 앙증맞게 봄순이 돋을 때 즈음 ‘아, 이제 봄이구나’ 싶지요. 4월이 오면 어김없이 벚꽃이 피고 굴나무에 봄순이 자라납니다. 자쭈빛 레몬 잎도 피어나지요.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보리들이 싹쑥 자라나고 5월이 오면 하얀 굴꽃, 진분홍 레몬꽃이 지천으로 피어나지요. 이 모두가 제주의 봄 하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눈에 보이듯 생생한 언어로 제주의 봄을 그려주는 루시드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의 이력은 매우 독특하다. 화학자이자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돌연 제주로 내려와 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전업 음악인으로 5년 여를 보낸 후 감행한 제주행이기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랬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연예인이 아닌 음악인인 루시드폴은 꼭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울보다 많은 것을 겪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덜 번잡한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음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가 제주에 자리 잡은 이유는 그가 겪은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었기 때문이다. 내려올 때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은 먹었다. 그러나 그것이 굴 농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밭농사를 짓다가 아는 분의 도움으로 감귤 과수원을 임대해서 2년 가량 농사를 지었다. 그때 알게 되었다. 나무를 돌보는 일이 아내와 루시드폴에게 더 잘 맞다는 것을. 그렇게 그는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고 굴나무, 레몬나무를 돌보는 농부가 되었다.

2월에는 들꽃들이 피어나고
3월에는 굴농사가 시작되죠.
레몬나무와 감귤나무에
양증맞은 봄순이 올라오면
비로소 봄을 실감하게 됩니다.



루시드폴의 사운드 인 제주

루시드폴은 사운드 아티스트로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주로 내려온 후에도 〈누군가를 위한〉, 〈모든 삶은, 작고 크다〉, 〈너와 나〉, 〈목소리와 기타〉 등의 앨범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특히 2022년에 발표한 〈목소리와 기타〉는 소리의 경계를 허물고 소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작품으로 루시드폴 음악의 확장과 성장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그는 특별한 작업을 하나 더 했는데 제주에서 채집한 소리로 오디오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 플로(flo)를 통해 발표한 〈루시드폴의 사운드 인 제주〉는 총 10편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로 대략 40분에서 한 시간 분량으로 만든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작업물이다. 물, 바다, 비, 숲, 바람, 풀벌레 소리처럼 자연에서 담아온 소리도 있고 제주 오일장 소리, 미생물 액비가 발효되면서 나는 소리 등 독특한 사운드스케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해 제주 곳곳을 헤매고 다녔다.

“소리를 채집한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재미있어요. 오름에서 바람소리, 새소리 등을 담았고요. 바닷가에서는 한 시간 가량 점점 차오르는 물소리를 담기도 했죠. 비 오는 날 과수원 오두막에서 담은 빗소리도 있고요. 하이드로폰(hydrophone)이라는 수중

마이크로 바닷속 소리도 녹음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의 생생한 소리를 더 담고 싶어서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경매하는 곳도 찾아가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하하. 코로나 때문에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바로 숲으로 가서 한 시간 동안 숲길을 걸으며 소리를 담아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숲을, 자연을 좋아했던 것일까? 그리고 보니 그의 음악가운데는 자연을 묘사하는 음악이 많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를 비롯해 ‘봄눈’, ‘벼꽃’, ‘물이 되는 꿈’, ‘그 가을 숲속’ 등등이다. ‘그 가을의 숲속’을 빼고서는 대부분 서울이나 유럽에서 작업했던 곡들이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유럽에서건, 서울에서건 늘 시선을 자연에 두고 살았던 것이다.

“저는 어떤 영감이 번쩍하고 찾아와 음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보고, 듣고, 몸으로 겪은 것들이 제 안에서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 혹은 인연이 되어 하나의 노래로 빚어지는 거죠. 그 과정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매우 신비롭습니다.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노래가 태어나는 과정을 분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그가 제주로 내려온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가깝게 살면서 삶 안에서, 생활 안에서 음악의 재료가 될 영감들을 꾸준히 공급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제주의 봄은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루시드폴은 제주 CBS에서 '기후 역습—제주의 봄가을은 안녕하십니까?'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내용이었다. 실제로도 제주의 봄가을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나고 문자 이야기가 술술 풀려 나온다. “많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지요. 2022년에는 제주의 서쪽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몇십 년만의 가뭄이었는지요? 2020년에는 여름 장마가 엄청 길었고 가을이 가물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그 반대, 여름이 가물고 가을에 비가 엄청났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 기후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패턴이 망가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아찔하죠. 가을, 겨울도 예전처럼 춥지 않은데요. 그 때문에 사라져야 할 벌레들이 다음 해에 너무 번져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분명 지나치게 이상한 날씨인데 사람들은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구 환경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그는 어떻게 탄소중립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 사실 개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분리수거를 잘해라, 재활용을 잘해라, 캠페인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재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가 강조한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자연에 ‘발자국’을 덜 남기는 일이라고. 그는 플라스틱, 비닐류를 거의 사지 않는다. 남은 음식물도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간에 묻은 후 발효시켜 다시 과수원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그나마 마음이 편해진 것은 그가 운영하는 과수원이 탄소절감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농사를 짓는 것이 지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논문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니 저희 과수원 나무들이 한 해 흡수하는 탄소가 대략 2~3톤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의 봄은 이렇게 뚜벅뚜벅 올 것이다. 농사짓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꼭꼭 씹어 즐기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가 있는 제주의 봄 풍경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안녕하기를 바란다. 숲



Smart Phone

숲 사진, 어디까지 찍어봤니?

우리끼리만 알고 싶은 스마트폰 숲 사진 촬영 비결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촬영 전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밝게 맞추기

평소에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화면을 어둡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렇다면 사진 촬영 전 화면 밝기를 밝게 맞추기만 해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기본 화면 밝기가 어둡게 설정되어 있으면 촬영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은 흔들림도 감지할 수 없다. 특히 야외에서는 밝은 화면을 유지해야 피사체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을을 명심하도록 하자.



수직/수평 안내선, 그리드 활용하기

사진이 아름다워 보이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구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드 기능이다. 갤럭시나 아이폰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화면을 가로, 세로로 3분할 표시해주는 그리드 기능이 들어있다. 사진을 찍기 전, 미리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수직/수평 안내선이나 격자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자. 수직과 수평선에 잘 맞게 피사체를 배치하면 보다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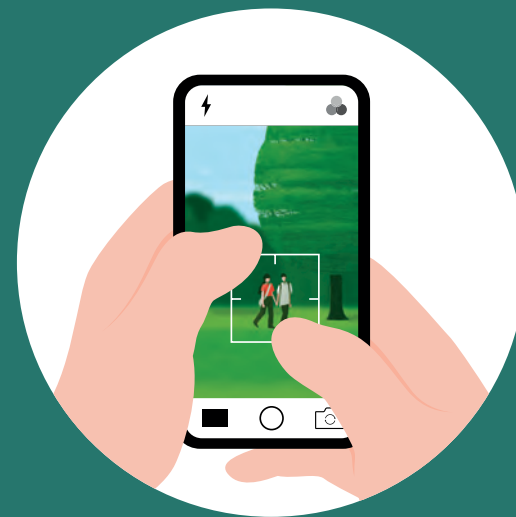
Photography

스마트폰 덕분에 누구나 손안에 카메라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는 세상이다.

요즘은 여행지에서도 무거운 DSRL 대신 스마트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잘 알고 활용하면 똑같은 스마트폰으로도 훨씬 좋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멋진 숲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본다.



라이브포커스/아웃포커스 기능 활용하기

사진은 흔히들 마이너스의 예술이라고 한다. 보이는 피사체를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찍는 사람이 담고 싶은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를 위해 권하고 싶은 것은 라이브 포커스나 아웃포커스라고 불리는 기능. 프레임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를 두고 배경을 흐리게 표현할 때 좋다.

/ 갤럭시에서는 인물사진에서, 아이폰에서는 피사체를 아주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ISO(감도) 맞추기

ISO는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숫자로 표시해주는 것으로 저감도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고감도는 민감도가 높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감도가 자동으로 맞춰지지만 조금 더 정확한 노출을 원한다면 ISO 감도를 조정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SO 감도는 200이고 실내 촬영시에는 400 정도다.

/ ISO 감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노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잡습니다〉

매거진숲 2023년 1+2월호, '세계의 숲소리를 들어볼까요?' 기사에 소개되었던 개동지빠귀 사진은 때까지 미성숙 개체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화 난만하니 드디어 봄이로구나

경남 양산 원동 매화숲

‘봄이다!’ 남도의 친구에게서 문자가 온다. 함께 날아온 사진에는 곱디고운 홍매(紅梅)가 살포시 웃고 있다. 오호, 드디어! 마음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 있던 겨울의 그림자가 일순간 싹 사라지고 화사한 기운이 차오른다.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봄맞이 가야지. 들뜬 마음은 어느새 열차를 타고 저 남쪽 원동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낙동강 강변, 뽕얀 봄기운이 올라오는 길목, 매화가 만발하는 그곳으로.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신중식



매화는 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다. 그런데 그 꽃이 너무 곱다. 혹한에 눈과 서리를 이겨내고 언 땅 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그렇게 누구보다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꽃이 매화이다. 매화꽃이 지면 그 자리에 매실이 열린다. 매화의 매(梅)는 나무(木) + 사람(人) + 어미(母)로 이루어졌는데, 매실의 신맛이 임신한 여성의 입덧에 효험이 있어 '어머니가 되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매화는 참 반갑고도 고마운 꽃인 것이다.

해마다 매화축제가 열리는 원동면

경남 양산시 원동면, 거기서도 낙동강 하류에 접한 원동역. 그 일대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매화 명소이다. 해마다 봄이면 전국 곳곳에서 매화축제가 열리는데, 이곳 원동에서도 3월 11일~12일 이틀간 매화축제가 있었다. 특히 원동 매실은 순수 토종매실이라 개량종에 비해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뛰어나며 매실의 주성분인 구연산 함량이 높아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원동면에서는 원동마을과 영포마을의 400여 농가에서 매실을 재배하고 있어 3월이면 마을 전체가 온통 매화로 뒤덮인다. 아, 잠깐. 바로 옆 내포마을도 빼 먹으면 서운하겠다. 영포마을과 내포마을을 합쳐서 예로부터 쌍포마을이라 불렀다. 매화축제 때에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쌍포매실다목적광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봄철 미나리로

유명한 함포마을까지, 봄철이면 다들 꼭 가볼만한 명소이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중단되었던 원동매화축제가 다시 열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그동안의 답답함을 털어버리고 해방감을 만끽하였다. 기분으로는 꼭 봄이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았다.

원동역에 내리자 그곳은 온통 매화, 매화, 매화

원동 매화를 보려면 기차를 타고 원동역에 내리면 된다. 덕분에 오랜만에 무궁화호로 느린 여행을 누리 본다. 열차엔 꽃구경 나선 사람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재잘거리는 아이들 소리, 엄마 아빠들 애기 소리, 덜컹덜컹 기차 소리.... 여기에 벌써 봄이 가득하다. 원동역에 내려 인도로 올라서면 눈앞이 확 트이는데, 바로 낙동강이다. 따사로운 햇빛이 물결에 반사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줄기를 거슬러 봄이 마치 언어처럼 힘차게 올라오고 있다. 길을 따라 슬슬 걸으며 보니, 그 넓은 기슭에, 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화꽃들이 만개하여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화난만(梅花爛漫), 그야말로 매화 꽃대결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매(探梅)에 나선다. 원동역에서부터 매실농장 순매원을 거쳐 매화공원까지 약 700여m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원동 매화의 절정 구간이다. 여기는 하얀 백매(白梅), 저기는 빨간 홍매(紅梅), 그리고 가끔씩은 연푸른빛이 감돌아 더욱 은근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청매(靑梅)까지, 들판과 하늘에 가득가득 매화가 흐드러졌다.

낙동강 하류와 접하고 있는 순매원은 일제강점기에 역무원들의 관사가 있던 곳이다. 관사 주변에 매화를 몇 그루 길렀던 것이 매화 농장으로 탈바꿈했고, 88올림픽 때 철길 옆 관사가 흉물스럽다 하여 이전시키고 본격적으로 매화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시대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순매원이 되었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가끔 100년 이상 된 매화나무도 보인다. 아지랑이 피는 강변에 작은 기차역, 따스한 햇볕, 귀를 간지럽히는 바람, 여기에 만개한 매화까지. 봄을 즐기는 명소로 이만한 데가 또 있겠는가. 눈부신 봄날이다.

우주와 내 몸이 함께 돌아감을 느끼는 시간

한 가지, 매화를 보러 멀리 갈 때는 뉴스를 보고 개화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매화는 그리 오랫동안 피어있는 꽃이 아닌 데다, 꽃샘추위가 오거나 봄비가 내리면 상당 부분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이다. 지역별 개화 시기로 계산해 보면 봄꽃의 속도는 시속 1.2km 정도이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매화가 피고 보름 정도가 지나면 서울에도 매화가 핀다. 제주와 서울은 직선거리로 430km 정도이니 봄꽃은 시속 1.2km로 북상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건 이 꽃의 속도가 아이들 걸음 속도와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봄꽃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천히 아이 걸음이 된다. 새로 차오르는 생동기운을 온 몸에 함뿍 담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 모두가 생명의 작용 아니겠는가. 내 몸에도 봄기운이 차오른다. 스스로 생명임을 느끼게 되는 시간. 우주와 내 몸이 함께 돌아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매화는 한 평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

매화는 예로부터 난초, 대나무, 국화와 더불어 사군자(四君子)라 불릴 만큼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꽃이다. 특히 긴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 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 지조와 절개의 표상이었다. 벚꽃은 화려하나 향기가 없고, 매화는 소박하나 그윽한 향기가 좋다. 그런데 옛 선비들은 매화는 지조가 있어 결코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문인 신흠(申欽)은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 매화는 한 평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라고 읊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매화 사랑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그 대표적인 매화 사랑꾼이 무려 107편의 매화시를 남긴 퇴계 이황 선생이었다. 퇴계 선생은 심지어 마지막 유언조차 '매화에 물을 주어라'였다고 하니 얼마나 매화 사랑이 지극했는지 알 수 있다. 요즘 천원권 지폐에 퇴계 선생의 초상과 함께 활짝 핀 매화 그림이 있는



1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매화명소. 원동면에서는 원동마을과 영포마을의 400여 농가에서 매실을 재배하고 있다.

2
'어머니가 되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매화는 참 반갑고 고마운 꽃이다.



3월이면 마을 전체가 온통 매화로
뒤덮이는 원동면. 4년 만에 축제가
다시 열리니 기분으로는 봄이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다.

것도 그런 까닭이다.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피었어도 자랑하지 않고, 한풀이 하지 않고,
은은히 품격을 지키는 매화. 겨울이 채 끝나지 않아 가지에 잔설이
남았을 때 피는 설중매(雪中梅), 그중에서도 설중 홍매(紅梅)를 만
나면 그 고혹적 자태에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다. 이런 매화는 사
실, 뿔 안에 한 두 그루 심어놓고 호젓이 음미하는 것이 제격일 터
이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봄, 벚들과 어울려
혹은 인파에 몸을 맡기고 꽃구경을 가는 것도 무척이나 즐거운 일
이다. 이제 지긋지긋했던 팬데믹도 일상과 함께 가는 흐름이고 굳
게 닫혔던 축제들도 다시 열리고 있다. 다시는 축제가 닫히는 일은
없기를. 이렇게 눈부신 봄인데 축제도 없이 보내면 한 해가 너무
허전하다.
매화가 지면 아쉬워 어떡하나. 원동에선 걱정 마시라. 매화가 지면
벚꽃이 피기 때문이다. 양산 물금에서 원동역을 거쳐 삼랑진, 밀
양까지 약 12km 구간이 온통 벚꽃 명소다. 더구나 원동역은 바로
낙동강 강변이라 봄을 느끼기엔 그만이다. 3월이 지나도 꽃소식은
계속된다. 설령 매화를 놓쳤더라도 개나리, 진달래, 벚꽃, 배꽃,
복사꽃, 살구꽃... 사방 천지가 꽃동산 아닌가. 생동하는 봄!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만끽하자. ☺



3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피었어도 자랑하지
않고, 한풀이 하지 않고,
은은히 품격을 지키는
꽃이다.

4
낙동강과 매화숲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순매원, 때 맞춰 기차라도
지나가주면 마을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된다.

5
처음엔 관사 주변에 매화
나무를 몇 그루 길렀던
것이 매화농장이 되었고
오늘날 순매원이 되었다.



순매원의 눈부신 매화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마침내 새봄, 공간에 그린을 초대하세요!

[그린 테리어]

그린테리어란 그린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초록식물이나 초록컬러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2023년의 인테리어 컬러로 세이지그린과 캐릭터스그린, 민트그린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하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변화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집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된 것. 이것은 집이 평온함과 휴식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2023년 인테리어 트렌드에는 그린의 대세다. 그린은 차분히 긴장을 풀고 잡념을 차단하기 좋은 컬러다. 숲을 상상하거나 삼림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새봄, 새로운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라운지 의자나 침실, 거실 등에 그린 컬러를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페인트잇수다

혹시 '녹색 갈증'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지? '녹색 갈증'은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월슨이 표현한 것으로 도시 생활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초에 자연에서 비롯된 존재로 자연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유전적 잠재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나뭇잎이나 초목의 색깔인 녹색을 바라보면 편안함, 치유, 힐링 등 긍정적 효과를 얻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녹색은 호흡을 차분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컬러 테라피에도 많이 쓰이는 색이다. 따라서 그린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거주공간에서 편안한 몸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던함을 연출하는 무채색 인테리어가 대세였던 우리나라의 인테리어에도 소소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그린 컬러를 위주로 한 벽지들도 나오고 있고 페인트도 세이지그린이나 캐릭터스그린과 같은 다양한 컬러가 등장하고 있다.

그린테리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먼저 벽지나 바닥재, 페인트칠 등에 그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부분에 그린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벽면 하나나 가구 등에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집안에 식물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는 법도 있겠다.

컬러 매치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다양한 그린을 톤온톤 한다면, 그린 컬러와 잘 어울리는 브라운, 화이트, 핑크 등과 매치하면 좋다. 특히 나무 소재의 가구는 그대로 자연의 컬러라 그린테리어와 아주 잘 어울린다.

새봄 집안에 화사함과 함께 자연의 넘치는 생명력을 더하고 싶다면 쉬운 그린테리어부터 도전해보도록 하자. 화사한 봄꽃까지 꽃아두면 한결 눈이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탄생할 것이다.



벽지나 바닥재에 그린테리어!

초록이라고 하면 한가지 색상만 떠오르지만 이상하게도 그린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컬러가 떠오른다. 옐로우그린, 캣터스그린, 포레스트그린, 아보카도그린, 민트그린 등등 말이다. 이런 컬러를 잘 배치하면 그 어느 컬러 보다는 품격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먼저 넓은 공간의 그린테리어부터 설명해보도록 하자. 넓은 공간에는 벽지나 바닥재 중 하나에 한 단계 톤 다운된 그린을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벽지나 바닥재를 깊은 그린 컬러로 맞췄다면 내부에 들어갈 액자나 가구는 무채색이나 화이트, 브라운 등으로 맞춰보도록 하자. 톤 다운된 그린 컬러와 어울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완성될 것이다. 밝은 느낌의 그린을 벽지나 바닥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가구나 패브릭의 컬러에 무게감을 높여 공간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은 나무로 만든 브라운 가구와 매치하는 것이다. 이때도 합판 보다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보이는 가구가 품격을 한결 높여준다. 소파를 놓고 싶다면 짙은 나무 색 보다 밝은 오렌지 컬러 가죽 소파에 도전해보도록 하자. 공간이 화사하게 살아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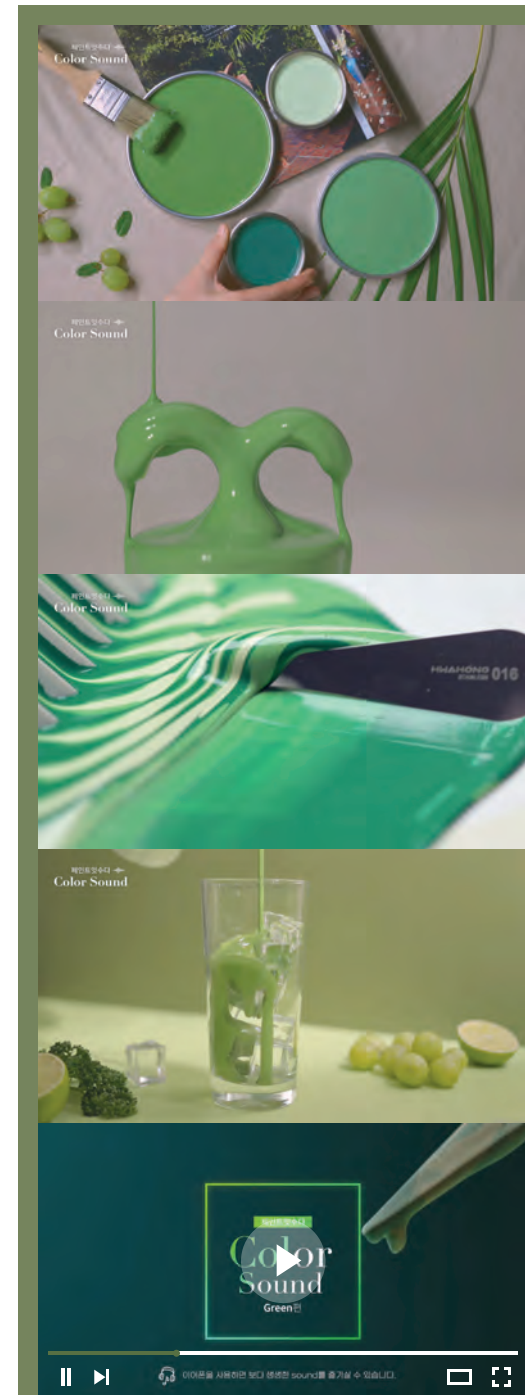


선택과 집중, 포인트 그린테리어!

그린 컬러의 인테리어는 채도와 톤에 따라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짙은 초록빛 컬러는 인테리어에 굳이 권하지 않는다. 한 단계 톤 다운된 빈티지그린이나 올리브그린, 민트그린 등을 포인트로 활용해보자. 벽 한쪽도 좋고 바닥 한쪽에만 활용해도 좋다. 그린 컬러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으로 주어 학령기 아이들 방의 포인트 인테리어로도 많이 활용된다.

벽이나 바닥재로 활용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가구나 패브릭 등으로 그린 포인트 인테리어에 도전해보도록 하자. 나무나 숲 그림이 그려진 패브릭 벽걸이나 쿠션 등을 배치하면 차분한 그린 컬러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주며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해줄 수 있다.

식물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물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색은 뭐니뭐니해도 화이트 계열. 이미 화이트 계열로 꾸며진 공간이라면 키우기 쉽고 생명이 강한 화분들을 들여 플랜테리어를 해보자. 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정화까지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페인트잇수다 paintitsuda

SUBSCRIBE

유튜브 '페인트잇수다' 채널에서
〈컬러 사운드〉 ASMR을 들어보세요.



페인트잇수다 조현정



Q 2023년 봄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A 요즘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꾸준한 화두가 되고 있죠?. '지속가능성'은 2023년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고, 트렌드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가구나 페인트, 소품 등은 물론이고요. 인테리어에서도 웜톤의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등 내추럴 컬러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린' 컬러가 최근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Q 그린테리어 중에서도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린 컬러가 있나요?

A 최근 가장 인기있는 컬러로는 미드톤의 뉴트럴 그린 색상이 PANTONE 16-0213 Tea 컬러를 추천해요. 미드톤의 그린 중 톤 다운된 색상으로, 채도가 낮아 편안한 느낌이 특징이죠. 팬톤 페인트 Tea 컬러는 벽지, 방문, 싱크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Q 사람들이 그린 컬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A 그린은 자연의 색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컬러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연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보다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Q 그린테리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간에 적합한 식물로 플랜테리어를 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이에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린 계열의 컬러로 벽지나 방문을 셀프페인팅 하는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리모델링 못지않은 분위기 전환 효과를 느낄 수 있죠.

Q 셀프 페인팅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을 주실 수 있나요?

A 나만의 공간 작은 벽면부터 페인팅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벽지를 제거할 필요 없이 평평한 벽지 위에 바로 페인트칠 할 수 있는 벽지페인팅은 셀프페인팅 작업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팬톤페인트는 냄새가 거의 없고, 건조가 빨라 페인팅 후 반나절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셀프페인팅으로 공간의 컬러를 바꾸면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된답니다.



취나물 향에 취하는 브런치 식탁

취나물 파스타
&
취나물 샐러드

해마다 이른 봄은 나물과 함께 온다. 그중에서도 취나물은 향기가 좋고 영양가가 풍부해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손꼽힌다. 그동안은 삶고 말려 나물로만 무쳐 먹었다면 이번 봄에는 상큼한 샐러드와 파스타 요리에 활용해보도록 하자. 잣과 치즈, 올리브유를 곁들여 페스토로 만들어두면 빵에 곁들여, 크래커에 곁들여 두고 두고 브런치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Chwinamul Pasta

취나물 파스타

재료 Ingredients

생취나물 50g, 올리브유 3T,
발사믹식초 1T, 마늘 2쪽,
파마산 치즈 약간, 양파 1/4개,
잣 2T, 비엔나소세지 2~3개,
파스타면 160g, 소금 후추 약간
(2인분)



취나물 파스타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만드는 법 Recipe

- ① 취나물은 깨끗하게 씻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담갔다가 큼직하게 썰어준다.
- ② 썰어둔 취나물과 분량의 잣,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 다진마늘, 소금후추, 파마산 치즈를 넣고 곱게 갈아준다.
- ③ 채 썬 양파와 얇게 썬 소세지를 팬에 볶아준 후 잘 삶아진 면을 함께 넣어 살짝 볶아준다
- ④ 불을 끄고 만들어 놓은 페스토 소스 2~4T를 넣고 잘 비벼주면 완성.

/ 취향에 따라 파마산 가루를 뿌리거나 작은 취나물을 올려 장식한 후 먹으면 좋다.



Chwinamul Salad

취나물 샐러드

재료 Ingredients

생취나물 3줄기, 두부 1/3모,
어린잎 채소 2줌, 방울토마토 10개,
견과류 조금(기호에 따라),
드레싱 소스 (소금 1/4T,
간장 1T, 식초 1T, 꿀 적당량,
올리브유 2T, 다진 양파 3T)



취나물 샐러드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만드는 법 Recipe

- ①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고 토마토는 이등분한다.
- ② 취나물과 어린잎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 ③ 소금, 간장, 식초, 올리브유, 꿀, 다진 양파를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 ④ 손질된 재료를 그릇에 담고 드레싱을 뿌려주면 완성.

/ 어린 잎이 아닌 취나물은 식감이 거칠 수 있으니
잘게 썰어 올리는 것이 좋다.

4D의 숲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자연을 만나다

디지털 디자인 컴퍼니,
d'strict



디스트릭트(d'strict)는 서울 코엑스에 선보인 퍼블릭 미디어아트 ‘Wave’로 이름을 알린 디지털 디자인 기업이다. 이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Waterfall-NYC’을 전시하였고 아르떼뮤지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자연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이 구현하는 숲은 사실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몽환적이기도 하다. d'strict가 구현하는 숲의 이미지를 지면을 통해 만나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d'strict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미디어아트

쏟아지는 파도에 괜히 몸이 움찔댄다. 공간 가득 꽃비라도 내릴라치면 어디선가 진한 꽃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실감 나는 화면에 빠져드는 느낌. 디스트릭트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이 선사하는 공간적 경험이다. 디스트릭트의 콘텐츠 제작 역량은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들은 이미 2021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 전광판을 통해 100m 높이의 디지털 폭포를 선보인 바 있다. 철골 구조물 아래로 거대한 폭포 물줄기가 쏟아지는 장면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2004년 설립된 디스트릭트는 이처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콘텐츠를 맞춤으로 제작하는 ‘Commercial Service’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Art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매거진 숲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제주, 여수, 강릉 아르떼뮤지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영원한 자연(Eternal Nature)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아르떼뮤지엄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는 Island, 여수는 Ocean, 강릉은 Valley입니다. 도시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컨셉의 작품을 선보이는 거죠.” d'strict 이성호 대표의 설명이다.

Valley를 주제로 한 강릉 아르떼뮤지엄

숲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강릉 아르떼뮤지엄의 Valley를 들여다보자.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을 담아낸 Valley는 공간의 배치에서 우선 그 차별성을 볼 수 있다. 작품과 작품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계단과 브릿지로 연결하여 산을 오르고 내리며 자연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브릿지 위에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높은 산 위에서 바다와 폭포, 숲을 조망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Valley 중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작품은 ‘Forest’다. 이 작품은 비주얼과 내용 구성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된다.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기 위해 강원도 깊은 숲속에 수풍지화(水風地火)를 상징하는 네 가지 정령을 등장시켰다. 정령들은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등장했다 사라지는데 숲의 정령을 브릿지 위와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게 설계하여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거대한 정령을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Forest’를 보시면요, 계절에 따른 숲의 변화를 실감 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름다운 숲에 꽃과 낙엽, 눈 등으로 만들어진 5미터 이상 크기의 거대하고 신성한 정령들이 공간 중앙에 위치하죠. 거대한 크기 때문일까요? 모든 정령은 밸리의 수호신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숲을 테마로 한 또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관람객의 손길로 살아나는 ‘Live Sketchbook Valley’에서는 민화에서 가져온 공간과 동물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재미있게 풀어내도록 기획했어요.” 이성호 대표의 말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아르떼뮤지엄 강릉에는 천둥의 중심에



1

1
디스트릭트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너무나도 실감나는 화면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온 몸을 움찔대게 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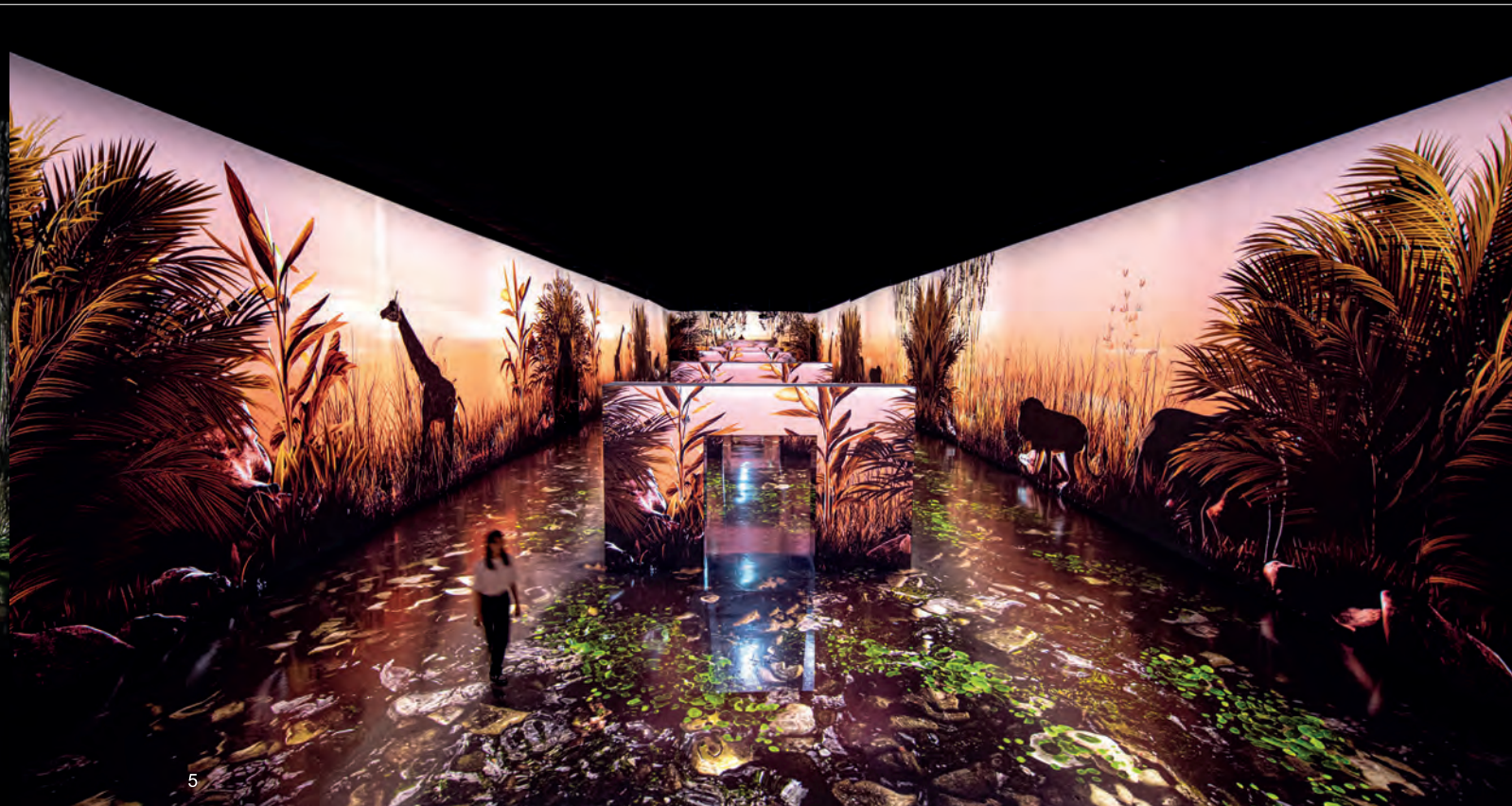
아르떼 뮤지엄의 작품들을 만나면 웅장한 자연의 이미지에 일단 압도되고 만다.



2



3



5

있는 듯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Thunder’와 반원의 구조물로 제작하여 무한 동굴로 들어서 는 경험을 제공하는 ‘Cave’, 아름다운 영서지역 풍경과 평온함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영동지역 의 모습을 총 12분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담은 ‘Garden—강원, 자연의 시간이 빛은 아름다움’ 까지 모두 볼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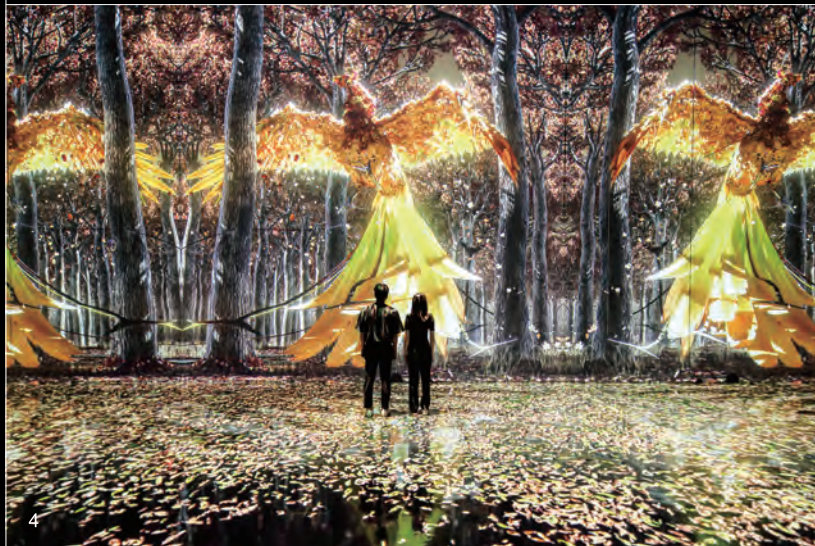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탄생할까? 이성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먼저 그 지역의 영원한 자연을 담기 위해 자연 유산에 대한 공부와 조사가 이루어져요. 주민과 의 인터뷰도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죠. 자료조사가 끝나면 명소와 식물들, 이야기들을 큐레이션하여 새롭게 배치하고 재해석하는 과정 을 거칩니다. 이렇게 콘텐츠 기획이 끝나면 시 각/영상, 디자인, 시스템/ 공간 설계 및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연출 등 다양한 역량의 최고 크리에이터들의 협업이 시작되죠. 사용되 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 요소는 프로젝션 맵핑,

3 강릉 아르떼뮤지엄 Valley에 등장하는 네 가지 정령, 수풍지화(水風地火)를 상징한다.

4 아르떼뮤지엄이 선사하는 영원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콘텐츠 기획, 시각/영상, 디자인, 시스템/ 공간 설계 및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연출 등 최고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한 결과물



4

다면영상제어, 센서 기반의 인터랙션 등이예요. 디스트릭트의 핵심 경쟁력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 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역량이거든 요. 이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현실보다 더욱 실감 나는 경험을 선사하죠. 설립 이후 벌써 4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갈 정도로요.” 이 역량을 바탕으로 디스트릭트는 2023년 본 격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중국 사천성 청두에 아르떼뮤지엄 청두를 올해 4월 개관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미국 라스베이 거스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뮤지엄을 개관 할 예정이다. 2024년 LA, 뉴욕 등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는 전세계 20개 이상의 주요도시에 아르떼뮤지엄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자연은 이처럼 특별한 설명 없이도 사람들의 발 길을 끄는 강력한 매개가 된다. 누구나 직관적으 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아 르떼뮤지엄이 선사하는 영원한 자연의 아름다움 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까운 전시관을 찾거나 QR코드를 통해 만나보기 바란다. 경이로운 자 연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될 것이다. 숲

강릉 아르떼뮤지엄 Valley.
깊은 숲속에 수풍지화 水風地火 를 상징하는
네 가지 정령을 등장시킨 Forest와
천둥의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Thunder,
동굴을 형상화한 Cave, 영동, 영서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Garden을
미디어아트로 감상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아르떼뮤지엄의 영원한 자연을 만나보세요.

커피 찌꺼기로 연필도 만들고 벽돌도 만든다고?

커피박 재자원화 플랫폼, 커피큐브

커피를

안마시는 사람이 얼

마나 될까?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2.7배나 많다. 카페는 분식점,

편의점, 중국집보다 많아졌고 커피 시장 규모도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커피 소비량이 늘어

나는 것에 따라 같이 늘어난 것이 카페 수나 시장 크기 말고도 또

있다. 바로 우리가 주로 ‘커피찌꺼기’라고 부르는 ‘커피박’이다.

국내 커피박 배출량은 2020년 연 35만톤이 넘어섰고, 여전히 계

속 늘어나고 있다. 커피박을 말려서 방향제처럼 사용하거나, 자

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내놓는 카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시간이 지나 버려지는 건 마찬가지이고, 배출량이 너무 많이, 빠

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폐기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커피박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데, 서울에서만 발생하는 커피

박 폐기물만 매일 145톤에 달하고 생활 쓰레기 전체의 10%를

차지할 정도다.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 매일매일 버려지는 커피

박.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은 곳이 있

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커피큐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커피큐브

버려지는 커피박이 새로운 비전으로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면목 흙플러스에 가면, ‘커피박환전소 카페’라는 곳이 있다. 커피박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카페인 이곳은, 커피박이 버려지지 않도록 커피 한 잔을 시키면 커피박으로 만든 커피연필 1자루를 제공하고, 또한 커피박 100g을 모아서 가져오면 커피점토 100g으로 교환해준다. 커피점토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매장에서는 커피박으로 만든 커피화분과 커피캔들까지 판매하고 있어서 친환경 체험을 위한 아이들과 부모님,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커피박환전소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천구에 있는 ‘커피박환전소 신정대장간’에서는 커피연필, 커피화분 뿐만 아니라 커피캔들, 환경키트, 커피점토 분말 등 더 많은 커피박 제품을 구매하거나 체험해볼 수 있고 커피점토를 실제로 100g당 650원에 ‘환전’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원주, 세종, 부산, 남양주, 포항, 청주 등에도 있는 ‘커피박환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커피큐브’이다. ‘커피큐브’는 15년째 커피박의 재자원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임병걸 대표가 시작한 회사이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대표가 커피박을 만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어느 날,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박을 누구나 가져가라고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쌓여있지만 하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걸 보고, 이걸 뭔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후로 임병걸 대표는 여러 방면으로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그 결과, ‘커피점토’라는 형태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커피점토를 만드는 기계, 커피점토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활동, 커피점토로 만드는 제품 등을 통해 자원화와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커피점토로는 형태가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커피박환전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커피연필과 커피화분 뿐만 아니라, 커피벽돌, 테이블, 디퓨저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고 한다. 또한 누구나 커피박으로 커피점토를 만들 수 있는 기계인 커피버스, 커피트레인을 판매, 대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커피박을 선순환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커피박 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커피박환전소

#버려지는 커피박을 새로운 자원으로





#점토가 되는 커피박

#커피큐브의 특허 받은 점토 기술

2020년,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던 임병걸 대표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지역의 엄마들과 함께 커피점토를 직접 만들어 연필 등 상품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고유미 대표를 만나게 된 것. 비전과 취지에 공감한 고유미 대표가 커피큐브의 영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 '커피클레이'의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사업은 점점 더 날개를 달게 됐다.

지구에 해가 되지 않게, 희망이 될 수 있게

"무조건 땅에 해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만들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도 지구와 땅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죠." 고유미 대표는 커피큐브의 철학에 대해서 말한다. 고유미 대표가 땅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커피박은 아무래도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이다보니 카페인에 들어있고, 그냥 버리면 땅을 산성화시키기 때문. 그래서 커피박은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소각 시에는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환경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커피큐브는 토양이나 물에 닿으면 퇴비가 될 수 있는 점토분말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고유미 대표는 "저희가 특허 받은 기술로 커피점토를 만들면, 땅에 묻고 한달 정도면 분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퇴비가 돼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커피점토로 만든 제품은 친환경일 뿐 아니라, 강도가 뛰어나고 은은하게 커피 향까지 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 주력상품 중 하나인 커피벽돌은 건물 내장재나 장식재로도 사용되는데,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회사에서 공장 내부를 커피벽돌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일본과 계약해서 지속적인 수출도 진행 중이다.

또한 커피큐브는 커피점토를 통해 재자원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 기반의 커피박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 커피점토를 만드는 일, 수거하는 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커피박을 커피분말로 만들어주는, 저희가 제작한 기계인 '커피트레인'을 설치한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 시니어클럽,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전국에 70여 곳이에요." 라고 고유미 대표는 말한다.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5

찌꺼기에 불과했던 커피박이 선순환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는 세상, 커피큐브가 그리는 세상이다.

6, 7

커피큐브의 특허 받은 점토 기술은 카페인으로 땅을 산성화시켰던 기존 커피박을 자연 분해시켜준다.

"행복해요. 커피박으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는 걸 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전 세계의 커피박이 100% 순환되는 세상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고유미 대표는 매일 같이 마시는 커피를 만들고 남은 커피박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저 '찌꺼기'에 불과했던 커피박. 토양을 오염시키고, 탄소 배출을 무릅쓰고 소각해야만 했던 커피박이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되는 세상, 그리고 그렇게 선순환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바로 '커피큐브'가 상상하는 세상일지도 모른다.

커피박, 이제는 우리 일상 속 이야기로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1kg의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 무려 2,000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아보카도가 유행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로 기억한다. 당연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환경 파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일이었다.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신다. 미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게 카페를 가서 커피를 주문한다. 이처럼 커피를 마시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된지 오래다. 텀블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회용컵을 주로 이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환경에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한발짝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지도 모른다. 오늘 마신 커피 한잔의 찌꺼기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



4



5

#자원 선순환과 새로운 희망



6



7

1, 2, 3

커피큐브는 특허 받은 기술로 커피박을 커피분말로 만들고 이것을 점토로 만들어 연필로, 벽돌로, 화분으로 재활용한다.

4

커피박을 커피분말로 만드는 커피트레인, 전국 7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세계가 놀라는 기적, 반세기 만에 이뤄낸 국토녹화

산림청, 국토녹화 50주년 기념사업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작한 국토녹화 운동이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73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국토녹화사업으로 그동안 약 100억 그루 이상을 심었고요. 그 덕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산림 비율이 4위에 오를 만큼 산림 강국이 되었답니다. 반세기 만에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된 거죠.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에서는 ‘숲으로 잘 사는 나라,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간 펼쳐 온 국토녹화 정책을 살펴보고 올해 추진될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이 지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보이는 곳마다 울창하고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 해방 이후 빨간 흙이 보일 만큼 황폐된 국토를 반세기 만에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시킨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산림청에서는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앞으로의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토녹화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화한 50년 역사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우리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었습니다. 산은 헐벗은 대로 헐벗어 흙이 다 보일 정도였고 국민들은 식량부족 현상과 함께 땀감부족 현상을 겪어야만 했죠. 당시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 다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다시 나무 심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967년 1월 9일 산림청을 개청하여 출범시키면서 새롭게 국토녹화 체계를 정비했지요.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를 연결하면서 본격적으로 국토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치산녹화 조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는데요. 세계은행(IBRD)에서 차관을 들여와 나무 심었고요. 조림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일당을 지원하기도 했답니다. 수종도 빠른 녹화를 이룰 수 있는 이태리포플러, 오동나무 등 속성수와 밤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 등의 유실수로 조림했습니다.

1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황폐화되었던 국토는 OECD 국가 중 산림 비율이 4위에 오를 만큼 산림 강국이 되었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시대 원년으로 삼고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 심기 정책은 1973년~1978년 '제1차 치산녹화 기간'을 거치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1979년~1987년까지의 '제2차 치산녹화 기간'에는 10대 조림수종을 21대 수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제림이 될 수 있는 장기수 위주로 심었고요, 속성수와 유실수도 함께 심었죠. 2차례에 걸쳐 수립, 추진되었던 국토녹화 계획은 목표를 모두 조기에 달성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녹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1990년대부터는 산림정책에 다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선 1997년까지 이어지는 '제3차 산림 기본 계획 기간'에는 생산성 높은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 총 78개 수종으로 다양화해서 심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는 78개 조림권의 장수종 중 기후대별 경제수종을 선정하여 심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우리 숲은 그 규모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201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나무 총량은 이미 9억 736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2년의 27배 규모가 된 것이죠. 산지 1ha당 나무 총량은 154.1㎥로 치산녹화 원년인 73년 11.3㎥의 13.6배로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봐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산지 1ha당 나무 총량은 148.5㎥로 320.8㎥인 독일이나 352㎥인 스위스에는 못 미치지만 131.2㎥인 미국은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르네상스 시대 원년으로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2023년,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시대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2
제 1차 치산녹화 기간과 제 2차 치산녹화 기간을 거치며 국토녹화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3
제 3차 산림 기본 계획 기간 후부터는 생산성 높은 수종과 기후대별 경제수종을 선정하여 심었다.

4
명민호 작가가 그린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Before & After 그림.국토녹화의 최종 목표인 '국민들의 행복한 숲 생활'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있는데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도록 산림 활동을 강화해갈 예정이고요, 국민이 일상에서 산림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트레일 조성, 이동형 반려식물 진로실 운영,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작물제, 산지 연금지도,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죠.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기념 행사도 풍성하게 열릴 예정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3월)하여 산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요, 4월에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오늘의 성과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민관이

함께 이뤄낸 기적, 국토녹화 50주년 성과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도전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국토녹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산림복원비전 국제컨퍼런스에 9월에 개최합니다. 반세기 만에 이뤄낸 국토녹화는 민관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이 푸르른 국토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켜갈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산림청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앞으로 50년, 새롭게 펼쳐나갈 산림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산림은 우리의 미래이니가요. 🌲

가고 싶었던 숲, 전시로 만나다

숲을 주제로 한 전시의 발견

글 매거진 숲 편집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서일까? 올해는 숲 관련 전시, 행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갑갑하게 눌러 썼던 마스크를 훌훌 벗어버리고 꽃향기, 숲향기 가득한 전시장을 흥분한 마음으로 찾아보자. 온갖 희귀한 종들의 꽃들부터 예술가들이 선사하는 치유의 순간들, 웅장한 숲의 시간들이 모처럼만에 제대로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반겨줄 것이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10여 년 만에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사전 구매 입장권만 50억이 팔릴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박람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규모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성된 저류지에 잔디를 깔고 1.2km, 국내 최장 마로니에 길을 조성한 '오천그린광장'. 국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도 오픈 전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순천만 연안과 내륙 람사르 습지를 연결하는 4.5km 구간 '어싱길', 전국 관광지 최초로 운영되는 '반려견 돌봄서비스' 등 화제거리도 많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따뜻한 봄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를 권한다.



뮤지엄 원 치유의 기술

미디어아트와 현대미술이 융합된 뮤지엄 원의 전시 <치유의 기술>이 2022년 3월 26일부터 해운대 센텀 뮤지엄 원에서 열리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예술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이 전시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21인이 참여하여 미디어, 설치, 회화, 사진, 도예, 사운드 아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하나 하나 이어 붙여 마치 겨울 숲에 들어온 기분을 선사하는 이지영 작가의 <The Last Unflowering Tree>나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하얀 여백 위에 동양화처럼 숲을 그려낸 김유정 작가의 <숲의 숲> 등은 자연이 줄 수 있는 치유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해준다. 동선을 따라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 예술과 치유의 본질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지영 <The Last Unflowering Tree>



김유정 <숲의 숲>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한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고성과 속초, 양양, 인제 일대에서 열린다.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엑스포 주행사장,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에는 5개의 전시관이 열리는데 푸른지구관에서는 초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숲의 실감 영상을, 산림평화관에서는 황폐화되었던 산림의 복원과정을, 문화유산관에서는 산림의 역사와 강원도 명승지의 절경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휴양치유관에서는 페이퍼아트로 표현된 환상의 숲 공간에서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와 캠핑체험이 진행되며 100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산업교류관에서는 산림 관련 산업 전반을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다.



숲속 우체통

장우익 강원도 동해시



〈숲의 만남〉을 펼치니 “숲이 있어 사람들의 공간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한다면 사람들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겠죠.”라며 금난새 지휘자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님을 지면으로 만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숲처럼 음악이 꼭 번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슬민 경기도 양주시



〈귀로 만나는 숲의 평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을 갖다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세계의 숲 소리를 탐험해볼 수 있는 기사도 흥미로웠는데요. 다만 사이트 주소를 QR로 실어주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 얹힌 구전이나 전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어릴 적 사방공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풀씨채집을 과제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산림청 야생식물종자 시드볼트’ 기사를 읽으니 이런 옛일이 기억나더군요. 종자 확보 전쟁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는데 산림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기사를 읽으며 시드볼트, 시드뱅크에 종자를 저장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수원 경북 구미시



〈숲의 선물〉칼럼을 읽고 백색소음과 숲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숲명에 빠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읽은 〈숲의 만남〉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숲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음악과 힐링과 치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서현 경기도 성남시



새해 새 기획 아름다운 숲길 탐방, ‘대관령 국민의 숲’ 기사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자작나무 등이 하늘을 찌를 듯서 있고요. 눈이 많이 내린 대관령이 꼭 겨울왕국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면 더욱 그리워질 곳이더군요. 이번 호 〈나를 부르는 숲〉 기사를 읽으며 정말 꼭 한 번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정 충남 아산시



산을 좋아하는 저에게 처음 보는 매거진 숲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좋았지만 특히 〈브런치@숲〉은 보기만 해도 침을 삼키게 할 음식이었네요.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숲〉을 읽으며 이미 가보았던 대관령 국민의 숲을 한 번 더 가보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매거진 숲을 정기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산불위험 최고조,
산불대책기간 운영



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
지자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
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
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현장감
시와 단속에 집중 나선다. 최근 산불은 소각행위
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청은 산림으
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불법임을
홍보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북 괴산 전종화씨



충북 과산에서 유기농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업인 전중화씨가 2023년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었다. 톱밥 배지로 표고버섯을 생산하면서 측면에서 나오는 버섯눈을 억제할 수 있는 '버섯눈 제거 장치'를 개발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이 장치로 특허를 출원했고 전국에 보급하여 임가의 인건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본인의 버섯 재배기술을 전수하며 후계 임업인들도 열심히 양성하고 있다.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 발표



전국 대부분의 봄꽃이 3월 중순 무렵 개화하기 시작하여 4월 중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산림청은 봄의 문턱에서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요 산림의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개나리는 완도수목원에서 3월 20일경부터, 진달래는 제주에서 3월 13일경부터, 벚나무류는 제주에서 4월 1일경부터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아름다운 우리숲
여행안내서(Vol4)’ 발간



산림청에서는 2023년 3월, '아름다운 우리숲 여행안내서(Vol4)'를 제작, 배포했다. 주제는 산촌 체험, 기차길 숲, 무장애 숲, 자연휴양림 등 4가지로 1박2일 오감만족 숲 여행을 할 수 있는 24개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지역 맛집과 즐길 거리, 볼거리 등 쓸쓸한 정보도 함께 담았으니 참고해보시길.

QR을 통해
우리숲 여행안내서를 만나보세요.

March + April
2023

각각의 스위치를 켜고
숨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제부터는 이 시

<리얼락픽이 또 예뻐서> 때>

그때 라일락꽃이 필에 피었을 때,

그리고 밤에 큰 별이 때 아니게 서쪽 하늘에 떨어졌을 때,

나는 서러웠다.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는 봄이면 다시

서러우리라.

언제나 돌아오는 봄은 내게 세 가지 것을 가져다 준다.

해마다 피는 리일락 꽃과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별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illegibl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0/20

주소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3	5	2	0	8
---	---	---	---	---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2023 3+4월호 독자의견

이름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전화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메일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